출가의 인을 심다

〈因〉

4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회향
7월 27일~8월 2일까지 18명 참여
"참나 찾는 수행, 일상 이어지길"
내년 1월 29일 5기 출가학교 입재

수원=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제4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가 8월 2일 7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향했다. 사진은 행자들이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출가의 인연을 맺기 위해 봉녕사를 찾은 여성 불자 18명이 7박8일 간의 일정을 무사히 회향했다. 행자들은 출가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신실한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8월 2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4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졸업식을 봉행했다. 지난 7월 27일 입교한 18명의 행자는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도반'으로서 서로 도우며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치고 회향식에 참석했다.

행자들은 그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과 경전 독송,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소리선명상과 요가 등 수행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또 삼귀의계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며 불자로서의 삶을 다짐했다.

석좌교수 도혜 스님은 "앞으로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지혜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길 바란다. 수행은 내면을 세우는 지혜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율주 적연 스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불제자로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운 삶을 체험했길 바란다"며 "앞으로 봉녕사 출가학교 행자로서 몸과 말과 마음을 잘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자리이타(自利利他)행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어 출가학교장 진상 스님이 행자들에게 일일이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행자들에게는 졸업증서와 함께 〈연꽃 향기로 오신 묘엄 스님〉(1, 2권)과 봉녕사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가 선물로 주어졌다.

진상 스님은 회향사에서 "수행은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반조자성(反照自性)이다. 마음을 반대로 돌려 내면의 세계, 자신의 성품을 비추어 보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한 가지라도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행동을 실천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3기 졸업생인 선혜화 행자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걸음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행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출가학교에서의 수행을 통해 굳건해진 신심과 원력으로 그릇됨을 멈추고 선법 닦기를 발원하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며 선심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느 곳에서라도 두려움 없는 청정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조그마한 공덕도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졸업증서를 받으며 눈물을 보인 월광화 행자는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도반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출가학교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불교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보덕행(20) 행자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생활하다 보니 너무 만족스러웠다. 특히 사시예불 기도에 온 힘을 다했다. 집에 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라고 소감을 밝혔다.

입재식 때 삭발을 했던 월인지(23) 행자는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이다. 스님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봉녕사는 내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제5기 여성출가학교를 운영한다. 공동생활이 가능한 17~60세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31-256-4127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난민에 자비 손길을"

로터스월드, 난민 지원 캠페인
8월 3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서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으로 발생한 시엠립 지역 난민들의 생활 모습. 사진 제공=로터스월드

아시아 불교국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8월 31일까지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으로 발생한 시엠립 지역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난민들은 지난 7월 24일 발생한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을 피해 다르메안체이주(Oddar Meanchey Province)와 프레아비헤아르주(Preah Vihear Province)에서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가 위치한 시엠립 지역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와 태국은 잠정적인 휴전에 들어간 상태지만 국경 인근 주민들은 이미 폐허가 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가 해당 난민들의 생활 현장을 찾아 실상을 조사한 결과, 피난민들은 천막으로 된 임시피난처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식료품, 식수 등도 부족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시엠립 지역 현지 사찰들이 임시 피난처를 조성해 제공하고 있지만 각종 생필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7월 29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1차 긴급구호를 진행, 생수와 쌀, 라면 등을 지원했다. 이어 모연 캠페인을 통해 시엠립 지역 난민들에게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모연금은 난민들에게 시급한 쌀과 식료품, 식수, 위생용품 키트, 모기장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캠페인 참여는 네이버 해피빈(캄보디아 국경 분쟁, 시엠립 난민에게 희망을)을 통해 가능하며 로터스월드 후원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024-071023-01-031
예금주 : 로터스월드(02-725-4277)

임은호 기자

더프라미스, 산불·수해 지역 지원 '구슬땀'

청송 산불 임시시설에 실용물품
폭우 산청 구조 인력 맞춤 지원



더프라미스는 7월 22~26일 5일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산청에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사진 제공=더프라미스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에 이어 7월부터 시작된 폭우로 이재민이 속출한 가운데 불교계 대표 국제구호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이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긴급구호를 이어가고 있다.

더프라미스는 6월 27일~7월 21일 약 4주간 3월 산불 이후 임시거주시설에 있는 청송군 이재민 총 480세대에 맞춤형 입주키트를 포함한 실용물품을 지원했다. 물품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이재민들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으로 세심하게 구성됐다. 맞춤형 입주키트 220개, 그릇세트 260개, 무더위 대비 선풍기 30대, 쌀 80포대 등이다.

한 이재민은 "산불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맨몸이었는데, 걱정을 덜어줘 감사하다"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7월 19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 활동도 나섰다.

더프라미스는 7월 22~26일 5일간 산청에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미처 손길이 닿지 않던 '틈새'를 찾아 이재민과 수색 및 구조 인력을 지원하는데 힘썼다. 수색 구조 인력을 위해서는 시원한 간식과 아이스 넥 스카프를 전달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구에 힘쓰는 이재민 200명에게는 의류와 식료품을 제공했다. 또 부식 400개도 전달하며 위로를 전했다.

임은호 기자

올 가을 피어나는 인연 '나는 절로 신흥사'

8월 14일 오전 10시까지 신청
청춘 남녀 10명 총 20명 선정

전 국민적인 관심과 뜨거운 호응,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나는 절로'가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신흥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강원관광재단과의 협업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9월 13~14일 1박 2일간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신흥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강원 여행'을 테마로 설악의 품에서 피어나는 인연을 맺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흥사는 설악산 자락과 동해 바다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사찰로 특히 설악 울산바위의 기운을 품은 도량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흥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중심으로 남녀 각 10명, 총 20명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구성된 다양한 활동이 마련된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영랑호 산책 데이트, 속초 바다를 배경 1:1 로테이션 차담, 관광수산시장 탐방 데이트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감성 프로그램도 준비, 지역과 청년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설악의 품속과 시원한 동해 바다를 품은 신흥사는 몸과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수행처이자 청년들이 진정성 있는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이번 '나는 절로'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역시 "설악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는 절로, 신흥사'는 종교에 상관없이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2030 미혼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8월 5일부터 8월 14일 오전 10시까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 공지사항 구글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은호 기자

달라이라마 성하 구순 기념행사 및 친견법회

2025년 9월 20일 다람살라 동참자 모집 중

삼학설행사(랍숨섀둡링)는 다가오는 9월 20일, 다람살라에서 동남아시아 10개국과 공동으로 '달라이 라마 존자님 구순 기념 행사'를 주최합니다.

삼학설행사는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할 사부대중을 모집합니다. 동참 일정은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7박 8일간이며 기념행사 참석, 존자님 친견 등 그 밖의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동 참 일 정 : 9월 18일~9월 25일 (출·귀국일 포함 7박 8일)
- 동 참 금 : 260만원
- 접 수 마 감 : 8월 25일(선착순 마감)
- 문의 및 접수 : 010-3264-4221 / 010-3033-0751 (문자 수신 가능)

